

데스크시각



김미은  
문화부장·편집부국장

“노래방에서 계속 혼자만 노래하는 부장님의 마이크를 빼앗아 막내에게 쥐여 주고 싶었달까.” 이 구절을 읽고 뜨끔했다. 나 또한 나도 모르게 ‘라떼는 말이야~’를 외치는 ‘꼰대’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다. 내 시선으로만 세상을 보고 다른 의견엔 귀를 닫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갔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뜨끔한 사람이 나뿐만은 아닐 것이라며 스스로 위안하기는 했지만 말이다. 이 구절은 ‘광주에 연고는 1도 없는’ 두 명의 젊은이가 펴낸 인터넷잡지 ‘요즘 광주 생각’의 프롤로그에 보인다. 두 사람은 광주·서울·베를린 등에서 만난 10명의 사람들에게 ‘1980년 광주의 5·18은 어떤 의미인지’ 물었다. 책에는 20~30대의 목소리만 담았다. ‘광주에 대해 잘 아는 어른들의 이야기는 세상에 많으니’ 그냥,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동안 듣지 않은 목소리를 듣고 싶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광주보다 앞으로의 광주가 궁금해 그들에게 마

막내에게 마이크를...

이크를 건넸다고 한다. 올해 우리는 5·18 40주년을 맞았다. 이제 5월 진상 규명의 목소리는 놓지 않되, 지금까지와는 다른 ‘5·18’의 미래와 ‘5월과 광주’에 대한 논의가 자유롭게 펼쳐져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5·18의 무기에 놀려 혹은 광주가 5월을 인식하는 방법이나 주변에 알리는 방식이 경직돼 있지는 않은지, 다양한 방식으로 공감하는 시도들이 막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도시적 오월 사적지 복원 문제

얼마 전 복원된 ‘전일빌딩245’를 둘러봤을 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다. 고만고만한 오월 관련 콘텐츠를 전시하기보다는 ‘헬기 추탄 자국’과 관련한 자료 등을 집중 배치해 특화시키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복합문화공간’에 더 방점을 찍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점이었다. 이는 바로 인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옛 전남도청과 상무관에 오월 콘텐츠가 담길 예정인데,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도 관련 콘텐츠를 만날 수 있어서다. 며칠 전엔 5월 사적지인 505 보안부대 옛터가 5·18역사 공원으로 바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초 젊은 세대들을 위한 교육 공간이나 청소년 창의공간 등으로 논의됐던 이곳은 면회실 등 일부 건물은 원형 그대로 남기고 역사의 벽 등을 조성

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젊은 창작그룹 ‘모이즈’(MOIZ)가 진행했던, 적십자병원의 미래를 꿈꿔 보는 프로젝트가 기억에 남는다. 스톱시 살의 어떤 젊은이는 병원 외관 전체를 꽃으로 치장해 화원으로 조성한 ‘기억의 정원’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1층엔 플라워카페를 만들어 언제나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고, 5·18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박한 장소’도 만들고 싶다고 했다. 또 다른 이는 1980년 모습을 재현하지 않고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살아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고 했고, 젊은이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예술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50대 시민도 있었다. 어떤 방식으로 5·18을 기억할지에 대한 논의는 다양할수록 좋다. 5·18을 ‘1980년’에만 묶어 두어서는 안 된다. 역사는 세월이 지나면 망각되고, 내 삶과 무관한 역사는 책속에서나 보는 박제품이 된다. 무조건 5월 유적지를 복원하고, 자칫 도시적인 원형 복원에만 매달려 행여 고문 장면을 재현한 밀랍인형 등으로 오월을 이야기하는 식이라면 그건 시대착오적 아닐까. 오월단체들과 일반 시민들 사이에는 ‘운도 차’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동안 오월 관련 토론회를 보면 자유롭게 의견이 오가고 치열한 토론 끝에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는 ‘한쪽 입장’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옛 전남도청, 상무관, 505보안부대 등의 콘텐츠나 문화전당 ‘미디어 월’ 존치 문제 등에 대해 ‘눈치보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오월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때론 발칙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좋겠다.

5월단체, 시민에게 마이크를

문학평론가 고(故) 황현산의 트윗 글을 모은 책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는 제목이 모든 걸 이야기해 준다. 농담과 유머까지 장착된, 그의 유연한 사고가 돋보이는 글들을 읽다 보면 “늘 모르는 것이 많다고 생각했고, 모든 사람에게 배운 준비가 되어 있었고, 열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하면서도, 동시에 그에 대한 반론을 주의깊게 듣고,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기존 생각을 수정하는 데 주저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아들의 회고에 동의하게 된다.

이제는 오월단체들이 슬퍼하고, 분노하고, 함께하지 못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며 그 시절을 함께 넘었던 수많은 광주 시민들과 다음 세대에겐 한 번쯤 마이크를 넘겨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의미 있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멋진 판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mekim@kwangju.co.kr

社說

도 넘어 부영주택 꿈수...특혜는 안 된다

부영주택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골프장 가운데 일부를 한전공대 부지로 기증하고 나머지 땅에 추진하는 대규모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부영 측이 아파트 공급 면적을 늘리기 위해 단지 내 도로를 없애고 기존 도시계획 지침까지 무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나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이달 초 빛가람동 908번지 일원 35만㎡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설 사업을 나주시에 제안했다. 사업 내용은 2026년까지 20~28층짜리 아파트 53개 동(5328가구)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영주택은 자연녹지인 해당 부지를 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부영 측은 ‘25층 이하, 용적률 175%’로 정해진 나주시 도시관리 계획 지침을 무시하고 최고 28층에 용적률 179.94%를 고집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0년간 나주 혁신도시에서 22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한 10여 개의 다른 건설사들은 모두 나주시의 기준을 지켜 왔다. 더욱이 부영 측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 학교 부지에 이어 단지 내 도로 부지도 대폭 축소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3개 필지로 구분하는 단지 내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으나 최종안에서는 2개 필지로 나누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로 면적을 감소하고 아파트 공급 면적은 그만큼 늘었다. 건설업계에서는 부영 측의 요청대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것은 수천억 원대 이익을 안겨 주는 특혜라고 비판한다. 부영 측의 제안에 대해 나주시는 심의 등을 거쳐 전남도에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하게 된다. 나주시와 전남도는 심의 과정에서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을 살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한전공대 부지 기준을 명분으로 한 부영 측의 과도한 요구가 특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일제강점기 고주택 보존 결정 잘한 일이다

광주시 동구청이 1930년대 지어진 고주택을 역사적 가치를 감안해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이 고택은 동구 동명동 서석교회 옆에 자리하고 있는데, 동구의 이러한 결정으로 또 하나의 근대 문화유산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애초 동구는 지난 4월 이 고택을 포함 일대 부지를 행정복합센터와 주차장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16여 억 원을 들여 매입했다. 85년 전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진 이 고택은 연면적 145㎡(대지 852㎡)의 주택으로, 서양식·일본식·한식이 혼재한 독특한 양식이 눈길을 끈다. 고택을 정면에서 바라보면 왼쪽 외관은 서양풍이지만 내부는 일본식으로 설계됐고, 오른쪽은 전통 한옥 양식으로 지어진 것이다. 또한 당시 고급 주택에 들어가는 ‘소금에 짜 말린 목재’가 사용된 데다, 건물의 곳곳에서 과거 궁궐이나 쓰였던 자재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2층 일본식 가옥에는 지하실도 하나 있

는데 지금은 마루로 덮여 있지만 뜯어 보면 아직도 존재할 것이라는 게 원 소유자의 말이다. 또한 이 지하실의 존재를 근거로 했을 것이지만, 이곳에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의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는 소문도 전해진다. 동구가 매입하기 직전 이 집의 소유자는 이 고택에 대해 “당시 전남도청에 근무하던 할아버지가 같은 도청 직원이던 일본인 건축가에게 설계를 부탁해 지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1936년에 지어졌으나 1955년 필지 분할 과정에서 서류상에는 1954년 건물로 등록된 것으로 전해진다. 건축 전문가들은 근대 문화유산의 가치가 충분하며 이 주택에 대한 보존을 주장한 바 있다. 다양한 양식이 섞인 독특한 주택으로 건축학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어찌 됐든 보존과 개발의 갈림길에서 보존을 택한 이번 동구의 결정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라 할 것이다.

은펜칼럼

공팔과이(功八過二) - 고 박원순 시장의 문제적 죽음 앞에서



최영태  
전남대 사학과 명예교수

공산국가 중국의 건설자인 마오쩌둥(毛老東)이 1976년 사망한 직후 중국에서 그에 대한 격하 운동이 일어났다. 이에 당시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덩샤오핑(鄧小平)은 ‘공칠과삼(功七過三)’이라는 용어를 빌려, ‘마오쩌둥에게는 공도 있고 과도 있지만, 공이 더 크다’고 말하고, 그의 공을 계승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말과 함께 논란은 쉽게 정리되었다.

죽은 자에 대한 평가는 어느 한 부면이나 어느 특정 시점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에 대한 것일 때 더 정확해진다. 나도 문제적 죽음과 함께 우리의 걸을 떠난 박원순 전 시장을 죽음의 시점이 아닌 그의 삶 전체를 놓고 이해하고 싶다. 여기서 나는 박 시장의 삶을 이해하는데 ‘공칠과

삼’ 대신에 ‘공팔과이(功八過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박 시장의 삶은 현대 중국 건설이라는 큰 업적에도 불구하고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등에서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킨 마오쩌둥의 삶과는 다르다고 보기 때문이다. 먼저 박 시장의 자살과 성추행건은 둘 다 그의 삶의 족적에 비추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부하 직원에 대한 성추행 문제가 사실이라면 진솔하게 사과하고, 그 책임 역시 다른 방식으로 짚어주는 게 옳았다. 그것이 평생을 이웃과 더불어 살아온 박원순적 해법이었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그를 통해 이 세상에 완전무결한 사람은 없다는 점을 새삼 확인했다. 어쩌면 박 시장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과도도 있었지 모른다. 그를 평하면서 ‘과이(過二)’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이다. 그러나 박 시장의 마지막 삶에 큰 과오가 있었다고 해서 그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부정할 수는 없다. 시민운동가로서 박원순의 주요 경력에는 인권 변론 외에, 역사문제연구소와 참여연대,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의 설립과 운영이 있다. 이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투철한 역사 의식, 풍부한 아이디어와 창의성, 탁

월한 실천력, 헌신적 봉사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그는 정치권에 입문한 후에도 시민운동가 시절 지닌 순수성과 역사적 책무 의식을 지키려 노력했다. 많은 사람이 외형적인 실적을 주눅했지만, 그는 오히려 자기 방식으로 대한민국까지 그랜드 디자인하겠다고 응답했다. 그것이 박원순이었다. 박원순 시장의 죽음과 애도 방식에 대한 논의가 분분했다. 조문 여부, 장례를 서울 특별시 기관장으로 치르는 문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박 시장의 장례 방식을 비판하는 쪽에 보수와 진보가 혼재돼 있어 논란의 성격이 더 복잡해졌다. 보수 진영에서 장례 방식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그들은 김대중, 노무현, 노회찬의 죽을 앞에서도 항상 그러했으니가 말이다. 그러나 일부 진보 진영의 문제 제기에는 많은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그 주장의 내용에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다. 시점의 문제성 때문이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는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사이만큼 크다. 적어도 박 시장의 공을 일정 부분 인정한다면, 그의 잘못에 대한 공론화는 상을 치

른 후에 해도 늦지 않았을 것 같다. 미국 텍사스 크리스천대 강남순교수는 이번 소동에 대한 소회에서 도덕적 순수주의가 하나의 경직된 이데올로기가 되면 그것은 또 다른 폭력성을 내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 역시 이번 조문 논쟁에서 지나치게 정치화 혹은 이념화된 일부 현상을 발견했다. 성격은 다르지만, 고소자에 대한 과도한 비난과 신상 탈기식 분노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식의 분노 표시는 피해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의도와 상관없이 박 시장의 죽음에 대해서 논란만 키울 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오랜 친구이자 동지였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말대로, 박 시장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위치에서 각자가 어울리는 애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자.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박 시장의 공과(功過)에 대한 객관적 평가,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도 병행하면서 말이다. 고 박원순 시장의 삶을 ‘공팔과이(功八過二)’로 이해하고 싶은 나의 이별사는 다음과 같다. “사랑합니다. 오랫동안 기억하겠습니다. 편히 쉬어주세요!”

기 고

명곡 ‘별은 빛나건만’의 진실과 비극



신일섭  
전 광주복지재단 대표

음악은 전 지구적인 언어라고 한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역사 속에서 스토리가 있는 음악은 더욱 많은 관심과 흥미를 북돋운다. 요즘같이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 팬데믹의 위기와 공포, 불안으로 자가 격리의 답답한 현실속에 스토리가 있는 오페라극에 빠져 보는 것도 힐링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탈리아 출신 자코모 푸치니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활동했던 오페라극의 거장으로, 역사 속에서 극적인 스토리를 잘 만들어 낸 세계 최고의 작곡가다. 필자가 중학교 때 단체 관람으로 그의 작품 오페라 ‘나비 부인’을 극장에서

서 보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토스카’는 1800년 6월 어느 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당시 전제군주 권력과 이에 반대하는 공화주의자 사이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예술과 사랑밖에 모르는 ‘토스카’라는 미모의 오페라 가수과 화가 ‘카바라도시’ 두 연인의 비극적이면서도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주제로 담고 있다. 오페라 ‘토스카’는 전체 3막으로 이루어진 작품인데 제1막에서는 토스카를 향한 카바라도시의 정열과 사랑이 아리아 ‘오묘한 조화’로 표현된다. 제2막에서는 주인공 토스카가 아리아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를 통해 오직 기도와 신앙심을 갖고 착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애인 카바라도시가 체포되고 처형당하는 고통을 주느냐고 주님을 향해 원망스러운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제3막에서는 사형 집행을 몇 시간 앞둔 새벽 카바라도시가 로마의 성 안젤로 옥상에서 사랑하는 연인 토스카를 생각하면서 그 유명한 ‘별은 빛나건만’(E lucevan le stelle)이라는 아리아를 부른다. 지금도 이 곡은 전 세계인의 가슴을

아프게 울려 주고 있다. 혁명과 공화주의 지이자 친구였던 탈옥수를 숨겨 주었다는 죄목으로 음흉한 경찰장장의 계략에 의해 카바라도시는 체포되고 다음 날 새벽 옥상에서 총살형 집행을 기다린다. 그때 카바라도시는 사형 집행관으로부터 연인 토스카에게 마지막 작별 편지를 허락받고 쓰다가 문득 하늘을 쳐다본다. 무수한 별들만 반짝이고 있는 하늘을 향해 그는 토스카와의 지난 날을 회상하며 “별은 빛나건만”을 절규하듯 노래한다. “별은 빛나고, 대지는 항기로 가득 차 있었다... 향긋한 냄새를 풍기며 그녀가 들어와/ 내 품속에 몸을 맡겼다./ 오! 달콤한 입맞춤, 수없는 나른한 애무.../ 이 사랑의 꿈은 영원히 사라졌다. 시간은 흘러갔다/ 절망속에 나는 죽는다.../ 이제 와서 이토록 아쉬운 것일까 목숨이라!”

이제 지금이나 역사에 남을 아름답고 진솔한 예술 작품은 정치적 긴장과 불안 속에서 비극적으로 탄생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 단위로 분열되었던 1800년 이탈리아 반도, 로마 지방을 일시 지배했던 전제군주 권력이 당시 프랑스 나폴레옹 공화주의자들을 철저히 탄압하던 때 토스카와 카바라도시의 비극적인 운명 속에서 ‘별은 빛나건만’은 탄생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음 앞에 선 인간은 누구나 생애 가장 착하고 진실한 것이다. 중국의 고전 ‘논어’에서도 “죽음에 가까운 새는 그 소리(鳴)가 애달고(哀), 죽음에 가까운 사람의 말(言)은 또한 착하다(善)”고 하였다. 죽음 앞에 선 카바라도시의 아리아 ‘별은 빛나건만’은 가장 진실하고 아름다운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노래 첫 부분에 나오는 클라리넷의 은은한 독주는 인간의 언어로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고독과 연민의 깊이를 보여 주고 있다. 진실은 영원한 것! 명곡 ‘별은 빛나건만’은 항상 듣는 사람들의 가슴을 흥건히 녹여 주며 앞으로도 영원한 사랑을 받을 것이다. 특히 이탈리아의 세기적인 오페라 가수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별은 빛나건만’ 절창은 명불허전이라고 할 만큼 큰 감동을 준다. 인생 전환기에 무엇인가 허전하고 가슴이 아플 때 이 곡을 듣고 싶다면 힐링이 되는 느낌이다.

無等鼓

부영그룹은 순천 출신 이준근 회장이 1983년 설립한 이후 주택 임대 사업을 주축으로 급성장해 세계 서열 17위까지 올랐다. 건설업과 레저 산업으로 사업 다각화를 이뤘지만 여전히 주력은 아파트 건축이다. 부영이 지금까지 전국에 공급한 아파트만 26만 가구가 넘는데 이 가운데 80%가 임대주택이다. 원양 한성이 그려져 있는 아파트 브랜드 ‘사랑으로’에는 ‘화목한 가정 그리고 부영과 입주민 사이의 동반자적 관계를 중시한다’는 이 회장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한다. 하지

‘부영스럽다’

데 실제로는 돈이 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만 짓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부영이 한전공대에 골프장 부지를 기부하는 대신 남은 땅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조건 없이 기부하겠다고 하니 이제 와서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토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는 것을 보니 ‘부영스럽다’는 세간의 지적이 빈말은 아닌 듯하다. ‘부영스럽다’란 말이 ‘시설은 싸구려로 짓고 이윤은 극대화한다’는 의미로 쓰여져야 되겠다. /정필수 제2사회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枚</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대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